



김주연
신입직원, 변호사

2010년 퀘백의 퍼레이드

2010년 겨울, 캐나다 퀘백을 여행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오지게 추웠던 날, 퍼레이드를 보겠다고 숙소를 나섰다. 유명한 퍼레이드는 아니었지만, 퀘백의 퍼레이드를 볼 기회는 다시는 내 인생에 없으리라는 생각이 컸다(여행의 고생스러움은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된다). 나는 퍼레이드의 시작 시간인 7시보다 좀 늦은 7시 15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미 퍼레이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퍼레이드는 8시 반까지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사이에 내 앞으로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이 족히 1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그 때마다 퍼레이드가 드디어 당도한 것이라고 착각했다. 내 앞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경찰 오토바이가 온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내가 느끼기에는 마치 퍼레이드가 온 것 마냥) 즐거운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즐거운 환호는 경찰관들 중 한 명이 지칠 줄 모르고 손을 흔들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맑디맑은 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퍼레이드가 아직 당도하지 않은 곳을 돌면서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연신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참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유쾌한 사람이로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추워지면서 손을 흔드는 그 놈(어느새 그 놈이 되었다!)이나 그 놈을 보고 환호하는 군중들의 심리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나마 내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장소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8시 45분쯤이 되어서야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퍼레이드 행진 내내 내 머릿속은 온통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은 춤지 않은지, 관악기 연주자들의 손가락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지,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은 복 받았네, 하는 등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추운 날이었다. 퍼레이드를 보는 내내 그다지 즐겁거나 감동적이지 않았다. 퍼레이드가 끝나는 순간만 기다렸다. 끝난 줄 알았는데 멀리서 다른 무리의 퍼레이드가 등장할 때는 절망적이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다. 제일 익사이팅한 게

혹시 마지막에 있을까봐.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참,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그저 그랬다. 난 두 번 다시는 퀘백의 퍼레이드 따위를 보러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늑한 호텔로 돌아가 내가 굳이 왜 저 추운 날씨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있었는지 스스로 책망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에 와서 그 때의 캐나다 여행을 돌이켜보면 퀘백의 퍼레이드를 보러간 지독하게 추웠던 그 날의 날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당시에는 전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랑스러운 기억이 됐다. 아마도 이건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을 회상할 때, 마냥 좋은 기억보다는, 야자 땡땡이로 선생님께 혼난 일, 여자 친구들끼리 미묘한 감정 다툼을 벌이던 일 등을 먼저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같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때의 상징 같아 더 그립고 아련해지는 그런 것들... (하지만 아무리 지금에 와서 사랑스러운 기억이더라도) 그 참기 힘든 추위를 뚫고 퀘백의 퍼레이드를 보러가는 일이 다시는 내 인생에 없을 것이므로, 내게 있어 퀘백의 퍼레이드는 영원히 2010년 겨울 한 때를 상징할 것이다.

나는 가끔 시간이 꼭 판화의 조각칼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저마다 시간이라는 조각칼로 음각과 양각을 새기면서, 어떤 기억은 파내버리고, 마지막엔 자신만의 볼록한 추억이 담긴 그림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게 있어서는 꼭 퀘백의 퍼레이드처럼, 별로였던 기억이 꼭 나쁘게만 각인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그 날의 날씨가 따뜻했다면, 퀘백의 퍼레이드는 벌써 조각칼에 의해 파내져서 나에게서 이미 잊혀진 일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여행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늘 최적의 상태이기를 바라는 욕심을 멈추어도 될는지 모르겠다. 시간은 가끔 의도치 않은 곳에서 아련하게 사랑스러운 추억을 선사하기도 하니까. 내게 있어 2010년 퀘백의 퍼레이드처럼 말이다. 🍷